

보도자료



배 포 일	2017. 5. 16.(화)	홍보 담당	기획처 홍보팀(880-5054, 9072)
담당부서	교무처 교무과	문의	김영찬 과장(880-5020) 최인형 주무관(880-5024)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시상

- 수 상 자 영어영문학과 김현진 교수,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
수리과학부 김명환 교수, 생명과학부 석영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준 교수,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
지구과학교육과 Sonya Martin 부교수, 제약학과 김영식 교수,
국제학과 안덕근 교수, 경영학과 황이석 교수 [이상 10명]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10명을 선정하였다. 특히 각 학과(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자들을 발굴하여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수상 회수를 전년(연 1회)보다 확대하였다(학기 당 1회, 연 2회).

교육상 수상자는 영어영문학과 김현진 교수(52),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55), 수리과학부 김명환 교수(62), 생명과학부 석영재 교수(55),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준 교수(62),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54), 지구과학교육과 Sonya Martin 부교수(43), 제약학과 김영식 교수(62),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49), 경영학과 황이석 교수(56) 등 10명이다. 시상식은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3시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에서 개최한다.

서울대학교는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성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공적사항

김현진 교수는 서양 문학, 특히 근대 이전 서양 문학을 통해 21세기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창의적/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윤리를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 자아와 타자가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문학 공부의 본령이며, 문학 텍스트를 공정하게 읽는 법을 배움으로써 세상을 공정하게 읽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전공과목 ‘중세영문학’, ‘중세르네상스영문학개관’, 교양과목 ‘서양 서사시의 전통’ 등을 통해 영문학 고전은 물론 고대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권의 서양 문학을 가르치며 새로운 수업 모델과 교수법 개발, 글쓰기 지도 방식 개선, 강의간/학기간 소통과 연계가 가능한 수업 커뮤니티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의영 교수는 ‘시민정치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하는 수업 (community-based learning)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스스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실제 시민정치 현상을 발굴 및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민주시민이자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기반 참여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가, 시민단체 및 활동가,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면서 서울대의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명환 교수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배우고 수학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수학교육에 헌신하였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인류 문명사에서 수학과 수학적 사고방식의 역할 및 의미를 가르치는 ‘문명과 수학’ 강좌에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강의 자료를 제작하여 수준과 내용을 한 단계 높였다. 수학 비전공 학생 대상의 ‘현대대수학’ 강좌에서는 강의 내용 및 교수법에 변화를 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용례들을 통해 복잡하지만 유용한 추상대수의 기본구조와 성질, 응용에 대한 핵심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학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융합 학문 전공자들이 기초 수학기론과 암호 이론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리 암호’ 강좌를 신규 개발하고 강의목적에 알맞은 교재를 직접 집필하는 등 흥미롭고 명쾌한 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석영재 교수는 생명과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주도하여 교과목간 체계 정비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 단과대학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교과목 ‘생물학실험’에서 조교들의 참여도를 높여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전공과목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교과목 내용 및 개설 강좌 수 등을 조정하여 교육과정의 체계를 바로잡았다. 또한 담당강좌인 ‘미생물학’, ‘미생물생리학 특론’에서는 여러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풍부한 강의내용으로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강의라는 호평을 듣고 있다.

김성준 교수는 혁신적이고 융합적 연구분야인 신정보철공학(Neural Prosthetic Engineering) 분야의 국내 개척자로, ‘신정보완기술’, ‘생체계측’, ‘고급생체전자공학’ 등 선구적 강의를 개발하여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영어 강의 및 원격 강의 개발, 동경대 동시 원격 강의 실시 등 새로운 시도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튜터링 제도 적극 활용, 전공과목 스터디 그룹 지원 등을 통해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봉희 교수는 건축역사학 관련 교육을 담당하며 ‘현대도시건축 산책’, ‘한국건축사연구 방법론’,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 ‘목조스튜디오’ 등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제 한옥 짓기 실습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다. 또한 한국 및 서양, 근대에 집중되어 있던 건축역사학 교육의 관점을 동아시아, 현대,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하여 본교 건축역사학 교육의 발전 및 한국건축문화의 국내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건축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주요한 건축전시를 기획하였으며, 한국건축 관련 많은 저술을 국·영문으로 출간하는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Sonya Martin 교수는 학생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토론하면서 학생 스스로 과학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초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예비교사인 학생들이 “Science Fair for All Students” 행사를 주최, 특수학교 방문 및 특수교사 인터뷰 등으로 다양한 학습자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웹진 「iSNUCE」 발간으로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울대 큰엄마’라는 애칭을 얻는 등 외국인 학생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영식 교수는 30여년 가까이 본교에 재직하는 동안 ‘의약품개발사’, ‘건강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천연물의약품학’, ‘유용천연물학론’, ‘천연물화학’ 등 다양한 강의를 담당하며 약학 교육에 헌신하였다. 학생들의 관심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영상, 영화,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드러난 관심분야를 분석하고 직접 교재를 집필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안덕근 교수는 국제통상 분야를 경제학, 법학, 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학, 법학, 경영학 등 여러 전공의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생한 강의를 위해 국제통상 분야에서 매년 새로운 현안과 쟁점을 발굴하고 강의내용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은 물론 현실적 안목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FTA 석사과정 유치, 스누인월드 스위스 프로그램 기획 등 국제학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황이석 교수는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재무회계 역량을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에 공헌하였다. 학부생에게는 국내외 경제현상과 기업전략에 관한 최신 사례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해서는 소속 기업 현안을 활용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최신 연구주제 및 방법론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